

[북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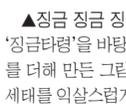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하시구 막힌 날=이종씨의 첫 창작 동화집. 부끄러움이 많은 인호는 학교 발표시간에 책상 밑으로 숨었다가 이상한 구멍을 발견한다. 그것은 시간이 빠져나가는 구멍. 곧 하시구를 지키는 이들이 인호 앞에 나타나고, 당황한 인호는 말을 더듬는다. 그러자 이들은 오허려 인호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나서는데... <교학사·8천500원>



▲리틀배틀-CEO의 경제 대결!=아르바이트를 하다 얼떨결에 재테크 운영을 맡은 승부욕 강한 오필승과 오필승에게 이기는 게 지상목표인 나데니의 CEO 한판 대결을 통해 가격, 품질, 광고의 개념과 돈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은행이 하는 일과 무역은 왜 하는지 등 다양한 경제 개념을 배울 수 있다. <휴이남·9천원>



‘요절 시인’ 기형도의 뜨거운 삶과 문학

‘정거장에서의 충고’

박해현·성석제·이광호 엮음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희망을 노래하려한다/마른나무에서 연거푸 불발음이 떨어지고/나는 천천히 노트를 덮는다/저녁의 정거장에 검은 구름은 멎는다/그러나 추억은 황량하다”(정거장에서의 충고 중)

‘정거장에서의 충고’는 고(故) 기형도(1960~1989)시인이 생전에 시집 제목으로 생각하던 시다. 그가 떠난 지 20년, 이제 그의 시는 문학 지망생들이 거쳐 가는 정거장이 되었다. 또 우리시대의 불안과 희망을 동시에 읽는 하나의 창문으로 자리 잡았다. <문학세계사·각권 1만2천원>

요절한 시인 기형도의 20주기를 맞아 그의 삶과 문학을 되짚어 추모문집 ‘정거장에서의 충고-기형도의 삶과 문학’이 나왔다. <문학세계사·각권 1만2천원>

추모문집은 총 3부로 구성했다. 1부는 기형도를 통해 문학적 감수성을 키운 2000년대의 젊은 시인 김형수, 심보선, 하재연, 김경주, 문학평론

가 조강석의 생생한 좌담과 글을 모아, 1980년대 불꽃처럼 살다 떠난 기형도가 21세기 오늘의 문학 지평도에 어떤 식으로 자리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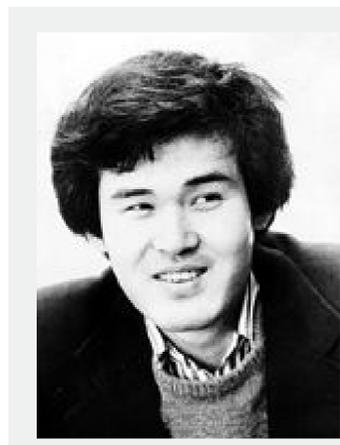
소설가 성석제·김훈, 시인 이문재 씨 등 생전 그와 가까웠던 문단 인사들의 산문을 모은 2부는 기형도의 인간적인 면모와 고민을 생생히 전해준다.

새로운 소식을 전할 때마다 “경악! 경악!”이라고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아, 절망! 절망!”이라고 말했던 시인의 모습을 기억하는 문학평론가 이영준씨는 “그 선량해 보이는 청년이 남겨놓은 시의 절망은 한동안 나를 당혹케 했다”고 썼다.

소설가 성석제 씨는 “문학상 상금을 타서 배부른 듯이 눈을 가늘게 뜨고 ‘너도 상금 받으면 먼저 책하고 타자기부터 사, 눈 딱 감고’라고 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를 아끼고 추억하는 지인과 문우들의 산문, 글마다 토막토막 실린 그의 시들은 애뜻함을 더한다.

3부는 그간의 기형도 비평 가운데 수작을 뽑아 모았다. 문화적 상징성에 주목해 그의 시를 재조명한 문학평론가 이광호, 수사학적으로 기형도의 길과 속을 파헤친 이아라, 기형도 시에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란 이름을 붙인 김현의 평문



◇기형도 시인은

1960년 경기도 용진에서 태어나 1985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1984년에 중앙일보사에 입사, 정치부를 거쳐 문화부·편집부 등에서 근무했다.

198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안개’가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한 그는 정치적 색채로 가득한 민중시·노동시가 주류였던 당시에 독시적인 언어와 독특한 상상력으로 자신만의 시세계를 다져 나갔다.

1989년 3월 7일 새벽, 첫 시집 출간을 준비 중이던 그는 종로의 한 신아극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해 5월, 유고시집 ‘입속의 검은 잎’(문학과지성사 펴냄)이 출간되었다.

등도 읽을거리를.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잘 있거라, 짙었던 밤들/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이, 잘 있거라/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이/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이/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이//장남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가없는 내 사랑 빈 집에 갇혔네”(‘빈집’)

이 새벽, 그의 유고시집 ‘입속의 검은 잎’을 들으며 그 뜨겁게 살다간 고인을 기리며 눈물을 흘리게 하는 책이다. <문학과지성사·1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상처받은 이들의 ‘러브스토리’

‘위로 1, 2’
안나 가발다 지음



프랑스 작가들 중 최다 판매부수를 기록하고 있는 안나 가발다의 장편 소설 ‘위로 1, 2’가 나왔다.

안나 가발다는 ‘누군가 어디에서 나를 기다리든 좋겠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네’,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등을 통해 국내에서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작가.

‘위로’는 전작인 ‘함께 있을 수 있다면’과 마찬가지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닌, 상처 받은 사람들이 만나 사랑으로 이룬 새로운 가족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은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마흔 일곱살의 성공한 건축가 샤를르 발랑다.

연상의 여인 로랑스 그녀가 전 남편에게서 낳은 딸 마틸트와 함께 살고 있는 그는 첫사랑 아누크의 사망소식을 접하고 한꺼번에 무너진다.

어두운 터널 속을 헤매던 샤를르르 아누크의 밝은 면을 담은 영국 여인 케이트를 만나면서 새로운 행복을 느끼게 된다.

시골의 낡은 농가 ‘석양의 집’에서 여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케이트는 샤를르르에게 ‘새로운 관계’에 눈뜨게 해준다. 생물학적으로 얽힌 가족은 아니지만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

한지. <문학세계사·각권 1만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보성출신 작가의 섬세한 여성관

‘빛의 사서함’
박리연 지음



섬세한 감각으로 여성주의 시들을 써온 박리연(58) 시인이 3년 만에 여섯 번째 시집 ‘빛의 사서함’을 출간했다.

보성 출신으로 올해 등단 19년을 맞은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죽어가는 것, 상처입은 것들을 향해 빛나는 ‘붉고 노란 웃음소리’(‘빛의 사서함’ 중)를 들려준다.

시인은 2008년 ‘운동장상 문화 부문 대상’을 수상한 ‘상황 그릇’을 비롯한 총 60편의 시를 통해 삶에 어떤 고통과 시련이 오더라도 그것에 절망하기보다 빛의 희망을 찾는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시인은 ‘모성적 상상력’으로 다른 이의 고통에 자신을 이입시키며 시종일관 ‘남 걱정하느라 참 부산스럽다’(‘박정웅’ 중). 이번 시집에 특정한물을 호명하는 시가 여러 편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물 마시듯/그의 영혼 마신 일 미안해서 한 잔/죽은 시간들이 꿈틀거리 감사해서 한 잔/그의 불우 속에 내 뉘까지 꺼들어/간 것 속되하면서 한 잔/마음 석 잔을 무덤에 뿌려드리니/온몸에 불이 나서 ‘돌아가는 삼가지’를/열창하는 가수 배호”(‘배호’ 중)

또 시인이 보듬는 상처는 비단 인간의 것만은 아니다. 말 못하고 생령 없는 것들에서도 시인은 상처가 굼가는 밤새를 맡는다.

<문학과 지성사·7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괄치 아픈 과학 쉽게 이해하기

‘영화는 좋은데...’
김상욱 지음

